

2020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

CONTENTS

06	들어가며
07	결과분석
07	양적분석
12	질적분석 : 성평등한 사례
13	질적분석 : 성차별적 사례
22	나가며
25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예능·오락프로그램 모니터링 보고서

20. 06. 01 - 06. 21

양성평등 모니터링 도구 표준화 제안에 따라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였다.

모니터링 대상

12 개 프로그램
지상파 6 / 종합편성채널 3 / 케이블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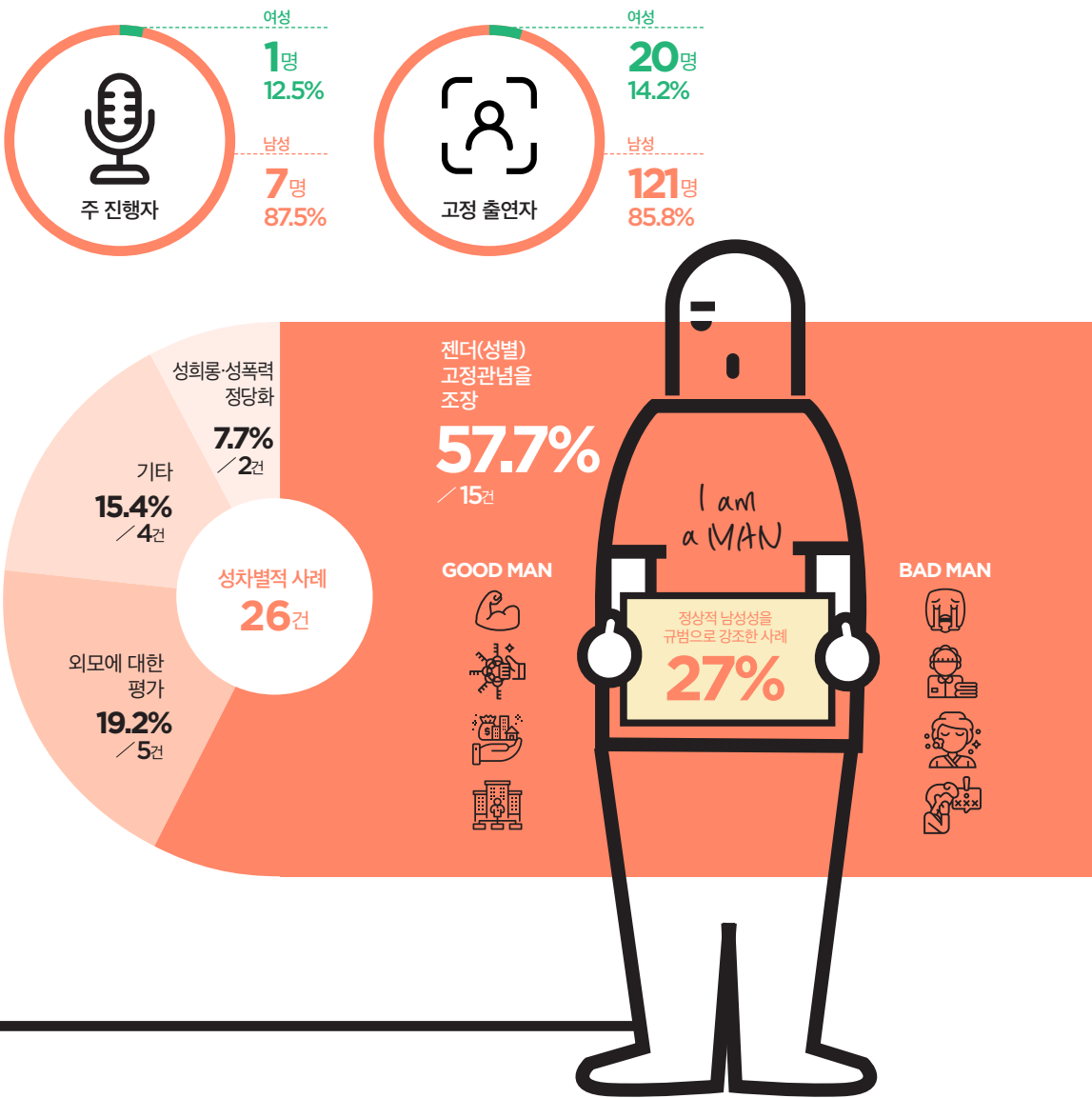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http://www.racoi.or.kr>)
내 인터넷 반응 DB 속 시청자버즈(동영상조회 기준) 상위 12개의
예능·오락프로그램 방영 분 중 3회분¹

매체 : TV(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방송사 :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tvN, Mnet
모니터링 인원 : 6명

매체	방송사	프로그램명	요일/시간
지상파	MBC	1 놀면 뭐하니?	토/18:30
		2 나 혼자 산다	금/23:10
		3 전지적 참견 시점	토/23:10
		4 복면가왕	일/18:20
종합 편성채널	SBS	5 런닝맨	일/17:00
		6 백종원의 골목식당	수/23:10
	JTBC	7 비긴어게인 코리아	토/23:00
		8 팬텀싱어3	금/21:00
케이블	채널A	9 하트 시그널 시즌3	수/21:50
	TV조선	10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타	목/22:00
	tvN	11 대탈출3	일/22:40
	Mnet	12 로드 투 킹덤	목/20:00



¹ '대탈출3'은 모니터링 기간 내
중영되어, 3회분 모니터링을 위해
5월 31일 자 방송분까지
모니터링함



01 들어가며

이번 예능·오락프로그램 모니터링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http://www.racoi.or.kr>) 내 인터넷 반응 DB 속 시청자버즈(동영상조회 기준) 상위 12개의 예능·오락프로그램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TV 시청자 수가 감소하고 모바일 플랫폼으로의 예능·오락프로그램 시청이 증가하고 있는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시청자 버즈 상위 18개의 예능·오락프로그램은 지상파 6개, 종합편성채널 3개, 케이블 3개의 채널에 분포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양성평등 모니터링 도구 표준화 제안에 따라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였다.

02 결과분석

1 출연자 성비

18개의 예능·프로그램 속 전체 출연자 성비는 여성 35.9%(140명), 남성 64.1%(250명)로 남성이 여성보다 1.7배 이상 많이 등장했다. 남성 아이돌이 등장하는 <로드 투 킹덤>을 제외하더라도 여성이 42%의 비율을 차지해, 여전히 남성이 더 많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능·오락 프로그램 출연자 성비
단위 / 명

프로그램명		여성	남성
1	놀면 뭐하니?	2	11
2	런닝맨	12	8
3	나 혼자 산다	7	10
4	전지적 참견 시점	13	42
5	백종원의 골목식당	26	22
6	복면가왕	23	26
7	비긴어게인 코리아	10	7
8	팬텀싱어3	5	29
9	하트 시그널 시즌3	6	8
10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사랑의 콜센타	29	20
11	대탈출3	6	10
12	로드 투 킹덤	1	57
합계		140(35.9%)	250(64.1%)

지난 5년간의 예능·오락 프로그램 출연자 성비 분석 결과, 20~30대 여성이 다수 출연했던 <내일은 미스트롯>이 모니터링 대상으로 포함되었던 2019년 3월을 제외하고 여성출연자의 비율이 40%를 넘어서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매해 모니터링 프로그램 선정방식과 수가 달라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지난 5년간 예능·오락 프로그램 출연자 성비 평균은 여성 37%, 남성 63% 수준이었다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능·오락 프로그램 양적 분석 시 성별을 지정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반복 편성되는 경우(남성 아이돌/ 여성 아이돌/ 남성 트로트 가수/ 여성 트로트 가수 등) 특정 프로그램이 성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등장은 성비 문제만이 아닌 프로그램 질적 분석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5년간 예능·오락 프로그램
출연자 성비

연도	월	여성(명)	남성(명)	합계(명)
2016년	8월	181(39.3%)	280(60.7%)	461
	9월	148(33.7%)	291(66.3%)	439
2017년	3월	180(38.5%)	287(61.5%)	467
	7월	159(38.7%)	252(61.3%)	411
2018년	3월	140(35.4%)	256(64.6%)	393
	7월	149(36.8%)	256(63.2%)	405
2019년	3월	250(42.1%)	344(57.9%)	594
	8월	105(29.5%)	251(70.5%)	356
2020년	6월	140(35.9%)	250(64.1%)	390
평균		161(37%)	274(63%)	435

2
출연자 성별 연령대

전체 출연자 연령대는 20대(32.5%)가 가장 많았고, 30대(18.5%)가 그 뒤를 이었다. 2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경연 프로그램인 <로드 투 킹덤>에 출연한 참가자들이 대부분 20대 남성이었기 때문이다. 20대 남성(102명, 26.1%) 다음으로 30대 남성(48명, 12.3%), 40대 남성(26명, 6.6%)이 뒤를 이었다. <로드 투 킹덤>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출연자 중 20대 남성이 48명으로 가장 많이 등장했고 그 다음은 30대 남성이었다. 50대의 성비 차이는 2배 이상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전체 출연자 성별 연령대
단위 / 명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모름	합계
전체 인원	5 (1.3%)	7 (1.8%)	127 (32.5%)	72 (18.5%)	43 (11%)	18 (4.6%)	5 (1.3%)	3 (0.8%)	110 (28.2%)	390 (100%)
여성 (%)	2 (0.5%)	4 (1%)	25 (6.4%)	24 (6.2%)	17 (4.4%)	5 (1.4%)	3 (0.8%)	3 (0.8%)	57 (14.6%)	140 (35.9%)
남성 (%)	3 (0.8%)	3 (0.8%)	102 (26.1%)	48 (12.3%)	26 (6.6%)	13 (5.3%)	2 (0.5%)	0	53 (13.6%)	250 (64.1%)

3
성별 역할

성별 역할은 크게 진행자와 출연자로 나눈 후, 역할 비중에 따라 주진행자/보조진행자, 고정출연자/보조출연자로 구분하였다. 스튜디오 예능의 경우 주 진행자가 프로그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관찰 예능의 경우 진행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모니터링 시 주진행자와 고정출연자 모두를 예능·오락 프로그램에서 주도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역할 구분을 살펴보면 주 진행자의 경우 남성이 7명이었으나 여성은 1명에 그쳤다. 고정출연자의 경우 여성이 14.2%(20명), 남성이 85.8%(121명) 등장해 남성이 6배 더 많이 등장했다. 주진행자와 고정출연자가 예능을 이끄는 진행자의 위치임을 고려하면, 2020년 6월 한국 예능 판은 여전히 남성 중심적임을 알 수 있다. <로드 투 킹덤>을 제외하더라도 남성 고정출연자가 여성 고정출연자보다 3배 이상 많이 등장해 성별 역할에서 성비 편차를 보였다. 보조진행자와 보조출연자 성비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역할에서의 성비 불균형은 수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인 남성성/여성성 스테레오타입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주 진행자와 고정출연자가 남성일 때 남성은 분위기를 주도하거나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권위를 가지게 되고, 보조출연자/초대손님으로 등장하는 여성은 웃음과 관련한 주도권을 갖기 어려워진다.

성별 역할
단위 / 명

	주 진행자	보조진행자	고정출연자	보조출연자 / 초대손님	기타	합계
전체 인원	8 (100%)	5 (100%)	141 (100%)	219 (100%)	17	390 (100%)
여성	1 (12.5%)	2 (40%)	20 (14.2%)	108 (49.3%)	9	140 (35.9%)
남성	7 (87.5%)	3 (60%)	121 (85.8%)	111 (50.7%)	8	250 (64.1%)

4
역할에 따른 성별 연령대

역할을 구분해 성별 연령대를 비교했을 때 예능·오락프로그램 속 고정출연자로 등장한 20대 이하 남성이 가장 다수였다. 아래 표는 <로드 투 킹덤>을 포함한 전체 수치이지만, <로드 투 킹덤>을 제외하더라도 30~50대 고정출연자에서 약 3배의 성비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 30~50대 남성 주 진행자는 같은 나이대 여성보다 6배 더 많이 등장했다.

역할별 연령대*
단위 / 명

		여성			남성			전체
		20대 이하	30-50대	60대 이상	20대 이하	30-50대	60대 이상	합계
연령대	주진행자	0	1 (12.5%)	0	0	7 (87.5%)	0	8 (100%)
	보조진행자	0	2 (40%)	0	1 (20%)	2 (40%)	0	5 (100%)
	고정 출연자	6 (5%)	14 (11.8%)	0	59 (49.6%)	40 (33.6%)	0	119 (100%)
	보조출연자/ 초대손님	25 (17%)	28 (19%)	6 (4.1%)	48 (32.7%)	37 (25.2%)	2 (1.7%)	147 (100%)

* 연령 '모름'으로 표시된 여성 57명, 남성 53명 제외

5
성별 직업군

전체 출연자의 직업군을 분석한 결과 총 20개의 직업군에 분포되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가수(172명, 44.1%)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직업군별 성비의 경향성에서도 가수의 성비 차이가 가장 컸다. 이는 남성 노래 경연 오디션 프로그램이 모니터링 대상 프로그램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또 눈여겨볼 직업군은 방송인/전문진행자와 일반 시청자였다. 남성 방송인/전문진행자는 여성보다 2배 많이 등장했고, 여성은 일반 시청자로 남성보다 약 3배가량 많이 등장했다. 이는 예능 판을 이끄는 위치에 남성이, 소비하고 시청하는 위치에 여성이 더 많이 등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연자의 직업군
단위 / 명

직업 번호	1	2	3	4	5	7	9	10	11	13	15
여성	8	14	28	1	9	0	2	0	0	1	5
남성	13	12	144	1	18	1	1	1	1	0	9
계	21	26	172	2	27	1	3	1	1	1	14

직업 번호	16	17	18	19	20	21	22	23	99	계
여성	4	29	2	1	13	1	0	7	15	140
남성	6	10	5	0	7	3	1	4	13	250
계	10	39	7	1	20	4	1	11	28	390

※직업분류번호

① 개그맨/코미디언

⑦ 의사

⑩ 교육 전문가(교사 등)

⑬ 주부

⑭ 자영업자

⑮ 운동선수

⑯ 무직

⑰ 모델

⑱ 방송인/전문진행자

⑲ 작가

⑳ 일반 시청자

㉑ 매니저

㉒ 기타...

㉓ 변호사

㉔ 교수

㉕ 상담사

㉖ 회사원

㉗ 요리사/요리연구가

㉘ 그 외 특정 분야 전문가

㉙ 학생

㉚ 모름

㉛ 요리사/요리연구가

㉜ 요리사/요리연구가

㉝ 요리사/요리연구가

㉞ 요리사/요리연구가

㉟ 요리사/요리연구가

㊱ 요리사/요리연구가

㊲ 요리사/요리연구가

㊳ 요리사/요리연구가

㊴ 요리사/요리연구가

㊵ 요리사/요리연구가

㊶ 요리사/요리연구가

㊷ 요리사/요리연구가

㊸ 요리사/요리연구가

㊹ 요리사/요리연구가

㊺ 요리사/요리연구가

㊻ 요리사/요리연구가

㊼ 요리사/요리연구가

㊽ 요리사/요리연구가

㊾ 요리사/요리연구가

㊿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요리사/요리연구가

</

아래의 성평등 사례들은 예능 제작 시 제작진들이 유의하면 좋을 지점들을 보여준다. 자막을 통해 “여자가”, “남자가”라는 성차별적인 발화에서 벗어나 “누구나”를 강조했다던 <하트시그널 시즌 3>는 패널에게서 성차별적인 발언이 나왔을 때, 다른 패널의 발언 혹은 자막으로 성차별적인 발화를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비긴어게인 코리아>와 <나 혼자 산다>의 경우 비가시화 되어있던 여성들의 목소리에 주목했기에 성평등한 장면으로 선정되었다.

채널 A / 06.17(12회) 하트시그널 시즌 3



관찰 영상 후, 윤시윤이 “남자들은 99% 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말을 못 한다”는 말을 하니 김이나가 “아니 그런데 그건 여자도 그래요”라고 지적한다. 자막 또한 특정 성별을 꼬집지 않고 “사랑 앞 대부분의 모습”이라며 성별 이분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었던 장면을 오히려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장면으로 전환했다.

JTBC / 06.06(1회) 비긴어게인 코리아



인천공항 방역 시스템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인터뷰하는 인천공항 관계자는 과장부터 모두 여성이다. 의료 및 방역 현장의 종사자로 주로 남성을 떠올리는 성차별적인 인식을 고려하면, 여성이 주체적으로 신념을 가지고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준 해당 장면은 코로나라는 사태에 방역을 수행해내는 여성들을 조명했기에 의미가 있다.

MBC / 06.12(349회) 나 혼자 산다



유이는 과거 배가 노출되는 의상을 입었을 때 ‘뱃살 논란’이 되어버렸던 일과 살이 빠졌을 때는 ‘거식증 환자 꼴’, ‘보기 싫을 정도로 말랐다’라고 같은 평가를 받았던 일을 통해 ‘논란거리가 되어버린 내 몸’처럼 느껴졌다고 이야기하며, ‘여성’ 연예인이기에 받았던 외모에 대한 무수한 평가 때문에 힘들었던 심경을 고백한다. 그리고 주위의 시선보다 본인의 건강에 집중하며 일상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의 삶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한다. 유이의 인터뷰를 보며 다른 여성 출연자인 박나래와 손담비 또한 외모 평가 때문에 힘들었음을 고백한다. 여성 연예인이 이상적인 외모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 쉽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외모 평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장면이다.

1 젠더(성별) 고정관념을 조장

JTBC / 06.19(11회) 팬텀싱어3



결승에 진출하기에 앞서 어깨 길이 정도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남성 출연자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는 장면이 방송됐다. 짧아진 머리를 보며 다른 출연자들이 “남자의 냄새!”, “멋있다”라고 칭찬한다. 긴 머리에서 짧은 머리로 변화하는 것이 ‘정상적인’ 남성의 모습이라고 강조하는 이 장면은 성별 이분법을 바탕으로 ‘정상적 남성상’을 강화한다.

MBC / 06.19(350회) 나 혼자 산다



김희철과 기안84가 그림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강에 방문한 장면에서 머리가 긴 김희철과 함께 있는 것을 ‘한강 데이트를 하고 있는 연인’과 같이라며 웃음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뒷모습만 보면 희철 언니(?)”, “어떤 여자보다 곱다”는 대화가 오간다. 머리가 길고 곱다는 외적인 모습을 근거로 ‘언니’ ‘연인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별에 따른 잘못된 고정관념을 양산한다.

SBS / 06.21(508회) 런닝맨



열 겹의 풍선을 눈썹 칼로 끊어 터지지 않게 하는 게임 중 조심스럽게 끊는 양세찬을 향해 지석진이 ‘시원하게 해야지 남자가~’라고 발언하고, 자막을 통해 강조되었다. 조심스러운 행동은 남자답지 못한 것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을 공고히 한다.

MBC / 06.19(350회) 나 혼자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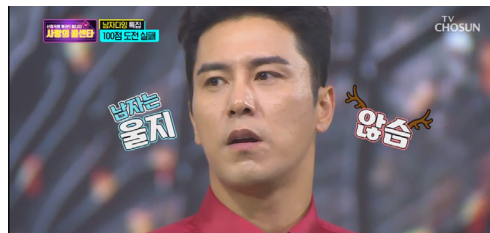


게스트로 나온 유아인이 세수와 머리 감기를 한 번에 하는 장면에서 같은 성별인 기안84의 세수 장면이 나오며 남자를 특징으로 묘사된다. 이어서 여성 출연자들에게는 ‘우리는 안 저래요’라는 자막이 붙으며 남성의 세안법을 특징하고 웃음의 소재로 사용한다. 남자다운 세안법과 여자다운 세안법을 나누는 성별 이분법적인 구분은 젠더 고정관념을 공고히 하기에 문제가 있다.

TV조선 / 06.11(11회)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 사랑의 콜센타



‘진정한 남자’인지를 ‘힘’으로 테스트하기 위해 펀치 기계를 무대로 세팅하는 과정에서 스태프 3명에게 보조 MC 붐이 “기계 하나 드는데 남자 몇 명이 달라붙는 거예요”라고 말한다. 이러한 발언은 남성은 무조건 힘이 세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고착화하는 성차별적 발언이다.



프로그램 진행상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자, 남성 출연자의 얼굴 옆에 남자는 울지 않는다는 자막이 붙는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 남성은 울면 안 된다는 잘못된 남성성을 재생산하기에 문제가 있다.



MC 김성주의 “가족 내 서열 5위”, “가족 내에서 입지를 잃은 우리 남성들”이라는 논평과 함께 “눈치 삼매경에 입지 않은 가장들”이라는 자막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장면은 가족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이라는 가족 구성원을 남성으로만 바라보며, 카리스마 넘치고, 자신감 있고, 가족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아가 가족을 통제하는 기존 ‘가장’의 모습을 이상적으로 바라보기에 문제적이다.

채널A / 06.10(11회) 하트시그널 시즌 3



여성 출연자들이 방에 모여 서로의 소셜 미디어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이카혼이 “다들 여자여자 한 것만 올렸네, 나는 게임 하는 거랑 간장게장 이런 거 올렸는데”라는 말을 한다. 이는 다른 출연자가 소셜 미디어에 올린 것에 비해 이카혼의 게임에 관한 포스트가 ‘덜 여성스러운 것’ 내지는 ‘여성스럽지 못한 것’이라는 말이다. 여성스러운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 짓기에 문제적이다.

MBC / 06.20(101회) 전지적 참견시점



해당 회차에서는 가수 김호중과 그의 매니저의 관계를 아들과 엄마의 관계로 묘사하는 자막과 CG가 다수 발견되었다. 가수 김호중의 부기를 빼는 데 도움이 되는 차를 준비하는 매니저를 향해 전현무는 “엄마야, 엄마”라고 말한다. 또한, 다이어트 중에 간식을 먹으려는 김호중을 ‘아들’로, 이를 제지하며 “이거 먹고 팬 사인회 끝나면 (숨겨놓은 간식박스) 줄게” 라면 김호중을 어르고 달래는 매니저의 모습을 ‘엄마’의 모습으로 CG를 입히는 장면이 나온다. 또한, 자신의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김호중을 향해 “어린이”라는 자막이 달린다. 성인 남성의 행동을 ‘철없음’ ‘어린이 같다’ 식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이를 대신해 챙기는 몫을 여성의 역할로 상징하면서, 돌봄에 있어 돌봄을 행하는 자 (엄마-여성), 돌봄을 받는 자(남성)라는 성별 이분법을 고착화한다. 더불어 ‘남을 돌보고, 살피고, 챙기는’ 역할을 여성이 해야 할 역할의 범위로 규정하기에 문제가 있다. 이는 여성의 노동을 노동이 아니라 ‘엄마의 일’(혹은 아내)로 바라봄으로써 여성의 노동을 비가시화하고 주변화한다.

SBS / 06.10(121회) 백종원의 골목식당



<꼬마김밥>을 운영하는 부부 사장들이 솔루션을 진행 받는 과정에서 백종원은 “사장님, 사모님. 나는 로고 여기에 투표했는데 어떠세요?”라고 말한다.

06.17(122회)



또한 <곰창집>을 운영하는 부부 사장 중 여자 사장에 대해 김성주는 “사모님”이라고 호칭하며 <포방터 훗탁집>의 위생상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아들 사장과 어머니 사장을 향해 백종원은 “권상욱 사장님, 어머니”라고 호칭한다. 이 프로그램에서 백종원은 출연자가 부부로 함께 일할 때 성별이 남성인 사람에게는 ‘사장님’이라고 부르지만, 여성에게는 ‘사모님’이라고 호칭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부부 출연자 중 여성은 사장님이 아니라 사모님으로 호명되면서 남편 사장님을 내조하고 돕는 부차적/보조적 존재로 취급되기에 문제적이다. 여성이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나 능력이 아닌, 남성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호명하는 문화는 여성을 공적인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의 노동의 경험을 평가 절하함으로써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성차별의 경험을 견고히 한다.

SBS / 06.07(506회) 런닝맨



게스트인 트와이스를 소개하면서, 멤버 사나의 트레이드 마크 '샤샤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진행을 맡은 유재석은 사나에게 샤샤샤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좋은 반응을 얻는다. 뒤이어 여성 고정출연자인 전소민과 송지효에게도 샤샤샤를 해 볼 것을 요구하는데, 사나와는 달리 싸늘한 반응을 통해 웃음을 유도한다. 이후 사나에게 김종국의 대표곡인 검은 고양이도 귀엽게 따라 한 것을 요청한다. 506회차 오프닝의 2분 이상이 사나와 사나의 애교를 다루는 데 사용된 것이다.

MBC / 06.06(107회) 전지적 참견시점



이찬원이 가수 주현미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말하는 중에, 주현미가 대상 수상소감에서 남편에게 감사 표현을 하는 중 “여뽕~”이라는 발언이 그 당시 유행어였다고 하면서, “(많은 아내가 '여뽕'을 해서) 그때 당시 출산율이 굉장히 증가했다”라는 근거 없는 추측을 농담처럼 말했다.

<런닝맨>의 사례는 아이돌 여성의 애교는 여성성의 정점으로 간주하고 런닝맨 하에서 런닝맨 여성 멤버들의 애교는 애교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성 규범의 문제다. 애교를 부릴 수 없는, 혹은 애교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담론화하며 프로그램 내에서 여성성을 무시당하는 여성을 상징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차별과 비하로 이어지기에 문제다. 더불어 연상의 남성 MC들과 어린 여성 게스트라는 뚜렷한 권력 구도 하에서 성인 여성에게 유아적인 연약함을 부각하도록 하고, 그것이 매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성차별적이다. 여성 출연진들에 대한 애교 강요가 이제 더 예능에서 그려지지 않길 바란다.

TV조선 / 06.11(11회)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 사랑의 콜센타



8살의 여성 일반인 출연자가 프로그램에 노래를 신청할 때, MC 김성주가 해당 가수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다시 한번 부르게 시켰다. 아직 어려 사리 분별이 미숙한 아이임에도 30살 차이나는 남성 가수에게 ‘오빠’라고 계속 부르도록 한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오빠’라는 표현은 친족 관계를 지칭하는 외에, 사회적 맥락을 지닌다. 위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오빠’라고 부르게 한 정황들이 최근 몇 년간 드러나면서, 오늘날 ‘오빠’라는 호칭은 ‘격의 없는 호칭’보다는 ‘지극히 사적인 행위’를 공유할 정도로 친밀해지라고 요구하는 성희롱²의 맥락을 지닌다는 비판이 거세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시 오빠 표현사용에 있어 출연자의 자막이나, 발언을 통해 강조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² 한겨레신문, “오빠가 도와줄게”... 오빠 드립은 이제 그만!, (2018년 3월 1일)
http://m.hani.co.kr/arti/specialsection/esc_section/834195.html#cb

2 외모에 대한 평가

SBS / 06.07(506회) 런닝맨



게스트인 트와이스의 무대 후, 여성 고정출연자인 송지효와 전소민이 트와이스의 외모에 기가 죽었다는 식으로 대화를 시작해, 둘을 트와이스의 실장, 매니저 같이라며 옆에 세워 본다. 출연자와 연출 모두 전소민과 송지효가 트와이스에 외모로 밀린다는 식으로 깎아내리고, 이를 웃음 소재로 삼고 있다. 기존 멤버의 외모를 비하하며 게스트를 띄워 주는 것은 불필요한 외모 평가이며, 더 나아가 자기를 비하하면서까지 상대의 외모를 칭찬하는 것이 예의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MBC / 06.07(258회) 복면가왕



‘뛰어난 미모로 남심을 사로잡은 트로트 섹시 퀸’, ‘군통령’, ‘트로트계 팔방미인’ 등의 표현들을 사용한 진행자의 대사와 자막으로 출연자를 소개한다. 출연자의 외모를 평가하면서 가수의 능력보다 외모에 초점이 가게 한다. 출연자 본인이 프로그램 출연 이유를 퍼포먼스로 주목받기보다 성인가요를 잘하는 가수로서 인정받고 싶다고 밝혔음에도 마지막까지 ‘트로트 여신’이라는 표현을 쓴 자막이 나온다.

SBS / 06.03(120회) 백종원의 골목식당



20대 남성 김동준과 20대 여성 정인선의 모습이 잡힐 때 ‘흔운한’ 분위기를 표현하는 자막과 CG가 사용된다. 이후 40대인 김성주와 50대인 백종원의 얼굴을 보여줄 때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화면이 갑자기 칙칙하게 보이는 것은 기분 탓입니다”라는 자막이 달린다. 두 사람에 대한 외모평가를 유머로 그려낸 것이다.

SBS / 06.14(507회) 런닝맨



답변만 듣고 질문 내용 맞히기 게임 중 전소민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유재석이라고 했다. 그러자 하하를 시작으로 모든 출연자가 ‘내가 봐도 못생긴 사람’, ‘스스로 봐도 못생긴 사람’이라며 유재석의 외모에 관해 이야기한다. 결국, 정답은 ‘연예인 아니면 여자한테 인기 없었을 사람’이었다. 외모 비하를 지속해서 개그 소재로 활용했으며, 제작진이 정답으로 준비한 질문 또한 연예인을 해서 인기가 있으므로 이성에게 인기가 있으며, 남성은 능력이 중요하다는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다.

MBC / 06.06(107회) 전지적 참견시점



강다니엘이 알려주는 춤을 추는 유병재를 향해 전현무와 양세형이 “산소 부족한 꿀뚜기”라며 외모 비하 발언을 하고, 강다니엘의 얼굴을 향해 “안구 복지 최상인 이곳”이라며 강다니엘의 외모를 계속해서 칭찬하는 자막이 달린다.

3 성희롱 성폭력 정당화

SBS / 06.07(506회) 런닝맨



오프닝에서 이광수가 짧은 바지에 트랜치코트를 입고 등장하자 전소민이 “이거 바바리맨 아니냐, 19금 아니냐”며 엄연히 처벌 가능한 성범죄를 희화화하고 있다. 성범죄의 속성이 있는 공연음란죄 (바바리맨)를 19금이라면서 ‘음란’의 범주로만 취급하고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도록 한다. 바바리맨 범죄의 경우 노출 또는 음란 행위가 대부분 여성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고 노출되었던 피해자에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범죄이다. 또, 하하가 “팬티만 입고 온 것 아니냐, 지식진이 “어디까지가 바지 인 거냐”며 이광수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데 이를 배경 음악 등을 통해 희화화하고 있다.

TV조선 / 06.18(12회)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 사랑의 콜센타

응원하는 가수와의 통화연결에 아내가 무척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남편인 일반인 시청자가 “미쳤나, 이 여자가”라며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데 진행자를 포함한 모든 패널이 크게 웃으며 재미있는 돌발 상황으로 치부하며 넘어간다. 화면에서는 “싸나이식(?) 어마어마한 아내 사랑”이라며 가정 폭력적인 모습을 아내에 대한 사랑이자,

TV조선 / 06.18(12회)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 사랑의 콜센타



일반적인 남편의 모습으로 미화해서 표현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가정폭력이 지니는 심각성을 경시하는 장면이다.

4
기타

SBS / 06.14(507회) 런닝맨



이전 회차에서도 전소민을 남자게스트를 좋아하고, 연애를 많이 하는 캐릭터로 그리고 있는데, 특히 507회에서 팀을 결정할 때 전소민과 지창욱을 불필요하게 이성애적 연애 관계로 묶었다. 또 유재석이 팀 선정을 할 때도 김유정 혹은 한선화의 팀을 하고 싶다며 이성 게스트에게만 관심을 보였고, 제작진은 '남자 게스트에 관심 없음'이라는 자막을 통해 해당 부분을 강조했다. 이는 이성애 연애 관계만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SBS / 06.03(120회) 백종원의 골목식당



<떡볶이집> 솔루션을 도와주는 김동준과 솔루션이 반영된 음식을 시식하려고 가게에 들른 정인선 사이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간다. 갑자기 화면과 자막은 둘의 관계를 '이성애적 로맨스 관계'로 설정하고, 그들의 대화를 이성애적 연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맥락으로 치환한다. '젊고', '매력적인'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이 둘의 관계를 연애감정의 연장선으로 설정하고 소비하는 것은 가게의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맛을 평가하기 위해 온

SBS / 06.03(120회) 백종원의 골목식당



출연자 여성과 남성 간의 관계 기본값을 '이성애적 연애'의 기준에서 바라보며 여성과 남성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관계의 모습들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이성애적 연애 관계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다양한 연애 관계와 감정의 상태를 비정상적으로 규정하고 낙인찍을 위험이 있다.

JTBC / 06.06(1회) 비긴어게인 코리아



여자친구와 함께 온 출연자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수현을 실제로 본 소감을 물었다. 출연자가 수현이 예쁘다고만 말했다는 뿐인데 주변의 패널들과 공연의 관람객들은 환호하고 '클럽수와 비서등으로 표현하는 이 커플(?) 찬성이에요~와 같은 자막이 더해지며 갑작스럽게 두 사람 간의 이성적인 로맨스 관계가 있다고 분위기를 몰아갔다. 이는 남성과 여성 간에 이성애적인 로맨스 관계 외의 다양한 관계를 상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TV조선 / 06.18(12회)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 사랑의 콜센타



남성 고정출연자인 미스터트롯 7명이 출연하는 가상의 '걱정 멜로' 영화를 설정하면서 MC 김성주가 "한 세 사람 정도가 여장해야 하는"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멘트는 다양한 성적 지향성을 부정하고, 이성애만 정상적이라고 여기는 차별적 장면에 해당한다.

03 나가며 / 개그 콘서트 방송 중단 이후 예능·오락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모습은?

지난 6월 26일 <개그콘서트>가 21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방송 중단되었다. <개그콘서트> 마지막 화 '시청률의 제왕' 코너에서 박성광은 "뭐 이렇게 안 된다는 게 많아! 손발 다 묶어놓고 어떻게 웃기라는 거야"라고 돌려 불만을 표시했다. 이 발언은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고 우리 안의 차별에 대해 예민해지라고 요구하는 최근의 분위기에 대해서 '불편함'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발언이었다. 이제껏 우리나라 개그가 활용했던 '손발'은 과연 무엇이었나? 그 손발을 사용함으로 불편한 사람은 누구였으며, 그 불편함은 사소하거나 정당한가? 우리는 이것을 고민보아야 한다. 막방 소감을 나누기 위해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준형은 코미디가 재미없어진 이유를 묻는 말에 "개그를 개그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믿는 말이 개그는 개그일 뿐이라는 말인데 그걸 개그로 받아들이지 않고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구성원 100명 100명을 모두 불편하게 하지 않는 개그는 어떤 개그인건가 관한 생각을 많이 해 봐야 하고"라고 답했다. 개그프로그램 속 비하, 혐오,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이제 희극인들은 "그럼 어떻게 웃겨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마주하게 된 것이다.

서울YWCA는 그동안 개그를 내세운 프로그램에서 외모 비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한국 예능 속 유머 방식이 외모에 대한 비하를 당연시함을 보여준다는 것을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도 외모에 관한 언급 사례가 5건 발견되었는데, 외모를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는 것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며 여성에 대한 외모 평가는 여성의 가치를 외모만으로 축소시키기에 문제가 있다. 18일 방영된 다큐멘터리 <개그우먼>에 등장한 여성 희극인들이 출연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도 단순히 '뚱뚱한 여성' '예쁜 여성' '못생긴 여성'으로 분류되었던 고충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온다. 외모를 기준으로 비하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 특성에 대한 다양성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타인의 외모에 대한 조롱, 미화, 평가는 유머가 아닌 차별일 뿐이다.

외모 평가뿐 아니라 젠더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사례들 또한 문제적이다. 2020년 6월 예능에서는 남성성의 틀을 정하고 그 틀을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비하와 특정한 남성성을 찬양하는 형태가 공존했으며, 이를 통해 정상적 남성성이 규범으로 강조된 사례가 7건 발견되어 전체 성차별 사례 중 약 27%를 차지했다. 남성의 외모 규범(긴 머리, 고운 외모 등을 언급하는 장면은 비하로, 근육과 체격을 강조하는 것은 남성다움의 찬양으로), 남성의 성향과 성품의 규범(울지 않는다, 조심스럽지 않다는 것을 규범으로), 남성의 일과 능력 규범(가장이어야 하며, 사장님이어야 하며, 돌봄 노동에 종사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 사랑의 콜센타>의 11화 주제는 '나는 남자다잉' 주제로 프로그램 내내 출연진들 모두 '상남자' 콘셉트였다. 이 회차는 "깨어나라 내 안의 남자여"와 같은 발언을 통해 진짜 "남자다움"을 끊임없이 강조해 성별에 따라 특정

한 속성을 갖는다고 여기는 잘못된 젠더 고정관념을 고착화했다. 성별에 따라 특정한 속성을 갖는다는 고정관념이 규범이 되는 사회에서는 그 규범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비하와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한국 개그프로그램의 간판이었던 <개그콘서트>의 종영이 가져온 "불편하지 않은 웃음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번 예능 모니터링에서 발견된 성평등 사례에 주목했다. 자막을 통해 "여자가" "남자가"라는 성차별적인 발화에서 벗어나 "누구나"를 강조했던 <하트시그널>은 편집하는 제작진이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는가에 따라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출연자의 문제적 발언에 대해서도 출연자에게 모두 책임을 지우지 않은 채 대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또한 <비긴어게인 코리아>와 <나 혼자 산다>의 경우 비가시화 되어있던 여성들의 목소리에 주목했다. 이번 예능·오락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에서 드러난 예능 속 주진행자와 고정출연자들의 6~7배에 달하는 심각한 성비 불균형은 여성 희극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할 필요를 보여준다. 여성 희극인들이 유머의 "관"을 바꾸고 벌리고 확장하는 과정에 더 주목하고,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많은 유머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모니터요원	
방송사	① KBS1 ② KBS2 ③ MBC ④ SBS ⑤ JTBC ⑥ MBN ⑦ 채널A ⑧ TV조선 ⑨ tvN ⑩ MCevery1
방송시간대	① 06:00-08:00 ② 08:00-10:00 ③ 10:00-12:00 ④ 12:00-14:00 ⑤ 14:00-16:00 ⑥ 16:00-18:00 ⑦ 18:00-20:00 ⑧ 20:00-22:00 ⑨ 22:00-24:00 ⑩ 24:00-06:00

출연자 성비 분석 *프로그램에 등장한 모든 출연자	
전체	명
여성	명
남성	명

출연자 분석 *프로그램에 등장한 모든 출연자	
이름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연령	① 10대 이하 ② 10대 ③ 20대 ④ 30대 ⑤ 40대 ⑥ 50대 ⑦ 60대 ⑧ 70대 이상 ⑨ 모를
직업	① 개그맨/코미디언 ② 배우 ③ 가수 ④ 모델 ⑤ 방송인/전문진행자 ⑥ 변호사 ⑦ 의사 ⑧ 비평가/평론가 ⑨ 언론인(기자 등) ⑩ 요리사/요리연구가 ⑪ 작가 ⑫ 상담사 ⑬ 교수 ⑭ 교육 전문가(교사 등) ⑮ 그 외 특정 분야 전문가 ⑯ 학생 ⑰ 일반 시청자 ⑱ 회사원 ⑲ 주부 ⑳ 자영업자 ㉑ 운동선수 ㉒ 무직 ㉓ 모를 ⑨ 기타_____
역할	① 주진행자 ② 보조진행자 ③ 고정 출연자 ④ 보조 출연자/초대손님 ⑤ 기타

성평등적 내용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시(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성차별적 내용				
	젠더(성별) 고정관념을 조장	성희롱 성폭력 정당화	외모에 대한 평가	성적 대상화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시(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성평등적 내용	
-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불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는가? -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을 과장되거나 회화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분야에 진출한 여성의 능동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 여성이 본인의 신념과 철학에 따라 일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장면을 제시하는가? - 성역할 고정 관념에서 벗어난 다양한 역할을 표현하고 있는가? - 다양한 가족형태를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 나이, 성별 등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는가?	
성평등적 내용	
젠더(성별) 고정관념을 조장	- 여성성/남성성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여 고정관념을 고착화하는 내용을 보이고 있는가? - 특정 역할에서 성비의 수적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 - 남성중심적 성규범(강간 통념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무분별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 여성을 남성의 단순보조나 부속물로 취급하는 내용 혹은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가?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미화해' 그리고 있는가? - 출연자 및 방청객을 성희롱하는 행위 및 언어를 포함하고 있는가? -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을 불필요하게 노골적으로 전시하고 있는가?
외모에 대한 평가	-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는가? - 출연자의 외모를 조롱, 혐오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와 관련된 언어를 사용하는가?
성적대상화	- 카메라의 구도나 움직임이 여성이나 남성의 신체를 분절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여 전시하는가? - 여성을 남성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바라보는가?
기타	- 독신, 한부모, 이혼가족, 재혼가족, 동성가족,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부적으로 그리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 00녀와 같은 거부장적이거나 성차별적인 단어(혹은 어휘, 혹은 표현)를 사용하는가?

2020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서울 YWCA

발행일: 2020년 6월 발행처: 서울YWCA 발행인: 이유림 작성: 강유민 김혜리(서울YWCA 여성운동국) 자료: 김수이(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협동과정 부교수) 출판기관: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